

이제껏 본 적 없는 악당, 조커가 온다

호아킨 피닉스의 소름 돋는 연기 토드 필립스 감독의 세밀한 설계 공감 결여 기득권 비판 메시지도 황금사자상 작품성 인정 기대감

처연하고 애달픈 악당의 탄생 이야기가 압도적인 서사로 완성됐다. 10월 2일 개봉하는 '조커'의 대담한 도전 결과다. 인류를 구하는 영웅 서사에 익숙한 관객 앞에 독창적인 세계관을 펼쳐치면서 가을 극장가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커'가 29일 현재 예매율 1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올랐다. 26일 첫 시사회를 통해 호평이 쏟아지면서 관객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주인공 호아킨 피닉스의 압도적인 연기와 감독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히어로물과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갖춘 '조커'는 기득권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까지 담아내 관객의 눈높이에 다가선다. 이달 7일 폐막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호아킨 피닉스의 소름 돋는 '조커'

'조커'는 양극화가 극심한 1980년대 고담시가 배경이다. 주인공 아서(호아킨 피닉스)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꿈꾸는 광대이지만 지독한 외톨이인 탓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 병까지 가진 그는 사회로부터, 무리들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점차 미쳐간다. 영화는 조커의 탄생을 희비극으로 완



영화 '조커'가 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1위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연 호아킨 피닉스의 열연, 높은 완성도와 사회적 메시지로 첫 시사회에서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사진은 영화 속 한 장면. 사진제공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성했다. 역할을 위해 23kg의 몸무게를 감량한 호아킨 피닉스는 '소름 돋는' 연기로 베틀 끝에 몰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그려냈다. 내년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그는 국내 시사회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조커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제껏 본 적 없는 대담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공감과 공감 결여에 관한 메시지'

슈퍼히어로 '배트맨'을 다룬 원작 만화에서 출발한 '조커'는 그동안 이어진 시리즈를 통해 '배트맨의 속적'으로 그려졌다. 이번 영화는 원작에 없는 조커의 탄생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기존 '배트맨'과도 연결되는 이야기로 관객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높은 기대는 제작진까지 긴장케 한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특히 한국 관객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몹시 궁금하다"면서도 내심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득권과 특권층을 향한 관객들의 분노를 담아낸 메시지에 감독은 "언제나 당대 진행되는 다양한 일을 반영한다"며 "이 영화의 주제는 공감 그리고 공감의 결여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조커'에 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같은 날 개봉하는 한국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와 '퍼펙트맨'까지 어우러진 흥행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각각의 소재와 장르가 다른 만큼 서로 다른 강점으로 관객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빌보드 "슈퍼엠은 케이팝 어벤져스"

그룹 사이니의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 태용과 마크, 중국그룹 WayV 루카스와 텐 등 7명이 모인 SuperM(슈퍼엠)에 대해 빌보드가 '케이팝 어벤져스'라 칭했다. 최근 빌보드는 "SuperM은 최근 K팝에서 가장 인상적인, 블록버스터급 라인업이다"며 "미국시장에서 K팝의 주류를 이끌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시도"라고 밝혔다. SuperM은 10월4일 첫 미니앨범 'SuperM'을 전 세계에 공개한다. 한편 빌보드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그룹 몬스타엑스의 빠른 성장세를 다룬 보도도 내놨다.

이승기, 악플러들에 법적 대응 나서



이승기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가 악성 댓글과 그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9일 "이승기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및 악플러의 행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크 측은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자료를 법무법인에 전달한 상태다. 후크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게재, 모욕,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지혜 등 스타들 잇따라 웨딩마치



왕지혜

29일 스타들이 나란히 결혼해 눈길을 모았다. 연기자 왕지혜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룹 에이트의 멤버 주혜는 뮤지컬 배우 장우수와 화촉을 밝혔다. 그룹 포맨 출신 김원주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5살 연상의 연인과 결혼하며 12년 교제의 결실을 맺었다. tvN 드라마 '위대한 쇼'에 출연 중인 연기자 유정영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세 연하 신부와 결혼,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블랙핑크 뮤비 최단기 6억 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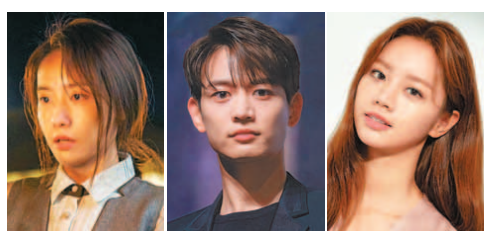


블랙핑크

결그룹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 조회수 최단기 6억 뷰 기록을 썼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9일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가 공개 177일 만인 이날 오전 6시쯤 유튜브 조회수 6억 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팝 걸그룹 최고 기록이다. 또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211일만에 세운 6억 뷰 기록도 경신했다. 이에 따라 '킬 디스 러브'로 9억 건조수를 지낸 '뚜두뚜두'의 기록을 다시 쓸지 주목된다.

임윤아·최민호...충무로 연기돌 전성시대

'엑시트' '장사리' 흥행 1위 흥린 '판소리 복서' 해리, 다음 타자로



임윤아

최민호

해리

가수이자 연기자로도 활동해온 아이돌 스타들이 주연 영화로 연이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흥행의 단맛을 보고 있다. 소녀시대 임윤아와 그룹 사이니의 최민호가 주인공이다. 성과의 바탕을 이어받기 위해 걸스데이의 해리가 나선다.

최민호 주연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장사리)이 25일 개봉해 첫 주말인 29일까지 누적관객 70만여 명에 다다르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국전쟁 당시 772명의 학도병이 참전한 장사상륙작전 실화를 그린 이야기에서 최민호는 학도병들을 이끄는 주인공 최성필 역을 맡아 활약한다. 앞서 '계춘할망' '인랑' 등 영화로 쌓은 경험이 '장사리'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최민호는 '장사리'로 얻은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제대 뒤 연기자로 다양한 기회를 맞을 가능성을 키운다. 연출자 박경택 감독은 "만약 이번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다음 연출작에서

또 한번 작업하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민호에 앞서 박스오피스 1위에 먼저 오른 주인공은 임윤아이다. 940만 관객을 모은 '엑시트'를 통해 올해 여름 최대 흥행 주역으로 등극해 실력을 증명했다. 더는 '연기돌'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스크린에서 주연배우로 자리를 잡았다.

그 바탕을 잇는 해리는 10월9일 영화 '판소리 복서'로 관객 앞에 선다. 지난해 스크린 데뷔작인 '물괴'에 이어 1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영화는 전직 프로복서가 '판소리 복서'이라는 기술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이야기. 엄태구와 투툼 주연으로 나서 청춘의 기발한 도전을 그리며 특유의 코믹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영화로 이어간다.

이혜리 기자

시청률 곤두박질...위기의 '연예인 토크쇼'

'해투' '라스' 시청률 5%도 못 넘겨 식상한 포맷 고집...시청자들 외면

안방극장의 '토크쇼 투톱'으로 꼽혔던 KBS 2TV '해피투게더4'와 MBC '라디오스타'가 시청률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대(닐슨코리아)로 시청자와 거리감을 좁혀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토크쇼 프로그램의 한계가 작용했다는 시선이 제기된다.

'해피투게더'와 '라디오스타'는 연예인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연예인 토크쇼'를 표방한다. 2001년과 2007년 각각 시작해 22.8%(2008년), 21.5%(2011년)에 달하는 시청률 성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끊임없이 '위기에' 휩싸였다. '식상하다'는 시청자 불만이 쇄도한 탓이다. 최근 5%를 넘지 못하는 시청률 성적표가 그 방증이다.

"유형에 뒤틀어진 토크쇼 포맷을 고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29일 "인위적인 분위기가 강한 토크쇼 포맷이 리얼리티 요소를

좋아하는 최근 시청자들의 취향과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진행자나 출연자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연예인 토크쇼'란 장르 자체가 프로그램의 취약점이란 의미로도 통한다.

최근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 등 각종 SNS를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분위기도 토크쇼 프로그램의 위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크쇼 프로그램이 연예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전하는 유일한 창구로 꼽혔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정덕현 평론가는 "시청자들에게 연예인의 개인사가 더 이상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책은 결국 "변화" 뿐이다. 정 평론가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각종 토크 프로그램이 직접 시청자를 찾아 간다는 점만 봐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해피투게더'와 '라디오스타'가 스튜디오 촬영, 연예인 게스트 체제 등 고정적인 포맷만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치킨 누들 수프' 히트...BTS 제이홉의 솔로 파워

전 세계 69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정호석)의 솔로 파워가 남다르다.

그룹 활동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가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로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전 세계에 공개한 '치킨 누들 수프'는 29일 오후 2시

기준 세계 69개국 아이튠즈의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흥행 흥연을 쳤다. 2018년 발표한 '호프 월드'와 '에어 플레인'에 이어 세 번째다. '호프 월드'는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200' 38위까지 오른 바 있다.

'치킨 누들 수프'는 제이홉이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접한 웹스타와 영비의 동명 노래에서 후렴구를 인용해 다시 만든 곡이다. 그룹의 '안무팀장'으로 뛰어난 춤



제이홉

실력을 자랑하는 그가 춤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사로 썼고,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배기 지가 피쳐링했다. 춤은 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닭의 날갯짓을 형상화했다. 곡 뮤직비디오에서도 그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제이홉은 최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뮤직비디오, 의상, 헤어스타일 등에 아이디어를 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팬들도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제이홉은 이에 각종 SNS와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홉의 솔로곡을 배경음악으로 그의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 제이홉이 이를 보는 방식이다.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는 '치킨 누들 수프'의 영문 약자를 따서 '씨엔에스 챌린지'(CNS challenge)로 정했다. 이미 SNS에서는 수천 여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